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90호 현대불교

21

2012년 5월 30일(음 4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일체 만법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본 지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12월 만에 왔는데도 이번에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첫째는 이 세상을 바로잡아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고, 또 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서 모두 자유스럽게 꾸달리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여러분이 사대(四大)로 흠어져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요다음에 투쟁만 열면은 승(僧)으로서 이 세상을 감당하리만큼, 아마도 겁지도 않고 회지도 않은 모습을 하면서 행동 중용을 하면서...; 아마도 저 깊은 바다가 흘러도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고 남이 없이 용을 하는 것은 바로 법신(法身) 문수(文殊)의 설(說)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푸르른 저 청정한 산과 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승가(僧家)의 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모두 돌이나 하면 돌이 아닙니다. 돌이 아닌 깨달음에 푸르름은 절로 푸르르고, 꽃 핀 거는 꽃 핀 것이고, 물 흐르는 것은 물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아집과 아상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이런 위치에서 이런 학위를 땀고 하나도 아쉬움이 없는 대업을 하고 있고, 내 가정이 돈이 없어서 질질 매지도 않는데 내가 뭐 배울 게 있나.' 이러지마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가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면 바로 죽음을 낚는 벼이삭과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실전을 옮길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여러분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금도 역시 과거를 현재에 가져왔고 미래는 현재에 가져왔으니 여러분이 지금 젊어지고 가고 오고, 죽고 살고 먹고 똥누고 일하고, 앉고 서고 자고 하는 것이 전부 참선이라고 그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참선이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 만법이라 하면은 일체 만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서 결정 지으면서 그 행을 하면서 들고 내는 것이 어떤 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것도 답답하지 않은 것도 전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사람도 답답한 마음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답답하지 않은 마음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또는 즐겁게 생각하는 것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일체 만법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조작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도깨비 장난을 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법신이 되고 보살이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열두 시에 내려와서 여러분을 접할 때 어떤 때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내 마음 약에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했더라면 내가 답답할 일도 하나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내 고통이요, 내 몸이요, 내 모습이니 말

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믿음이 상실되고 내 마음속의 그 믿음이 여지없이 흠어져있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을 여러분 자체 내에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물질세계의 50%만 보고선 항상 바람에 날림과 같이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끌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나왔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말에 속고 또는 남의 행을 보고선 거기에 끌리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다 보니까 자기를 끌고다니는 자기 주치의 참자기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죠. "이 세상을 다 쥐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지!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자비하신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했습니다. 스무살 안쪽이죠. 그런데 그때 "색경을 바라! 거기에 있느냐!" 색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생긴 내 얼굴만 보이지 도대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냐하면은 부(父)와 자(子)가 상봉을 하고도, 내가 경(鏡)을 봤습니까, 설법을 들었습니까? 그랬으니 그걸 모를 수밖에.

그렇게 자비하고 그렇게 같이 하면서도 볼 수 없었으니 그 모습이 그리웠던 겁니다. "당신의 모습은, 얼마나 그렇게 자비한데 당신은 모습이 없고 모습을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색경을 바라. 네가 손을 쳐들면 거기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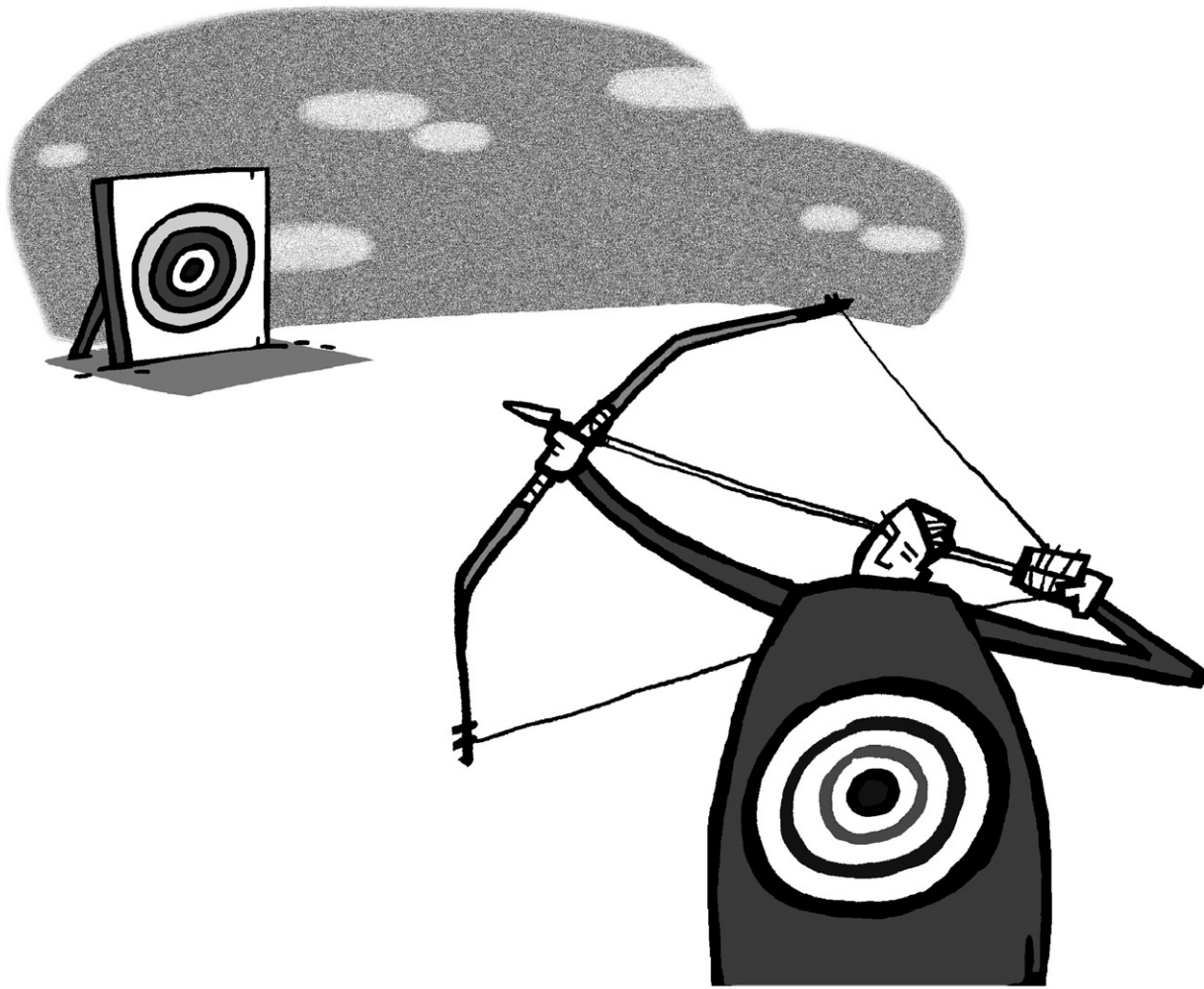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손을 쳐들고, 네가 찌푸리면 거기서도 찌푸리고, 네가 울면 거기서도 눈물을 흘리느냐. 네가 마음이 괴롭고 언짢으면, 그리고 고독하면 바로 나도 역시 마친가지니라. 네 그릇이 크다면 나도 클 것이고, 네 그릇이 작다면 나도 작을 것이다. 네가 울면 나도 같이 따라 우는 것이고 내가 울면 내가 같이 따라 우는 것이니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듣고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몸이 고달프다는 생각이 없었고, 못 먹었다는 생각이 없었고, 괴롭다는 생각이 없고, 나 흘라라고 생각을 한 예도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았어도 여러분과 같이 내가 높이 여기 앉았다고 해서 높이 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저렇게 위에 높이 있다고 해서 높이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항상 자비를 베푸시면서 찰나찰나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삼라만상의 그 여러 중생들, 이 세상의 보이는 중생, 이 세상의 보이지 않는 중생들을 다 거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대로 미꾸라지처럼 말합니다. 오리 빼앗 조리 빼앗,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물질에 젖고 너무 말 수단에 젖고, 너무 배워서 아는 게 많아서 젖고, 숨에 젖어서 그렇게 벗어나질 못하고 멧뚱하게 설 수가 없는 그런 이치가 아주 많이 보입니다.

무조건 죽지 않는다면 죽은 세상을 어떻게 맞볼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아주 죽는다면, 반쯤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죽는다면 생신이 될 것입니다. 아주 죽는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고 아주 죽지 못한다면 고통을 길게 하고 길게 아파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이판(理判)이다 사판(事判)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 아닌 깨달음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판 사판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살 양으로 그렇게 예를 써야 하죠? 몸으로 죽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마음이 죽는다면 몸도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해줄 수 있고, 남들을 이롭게 해줄 수 있고, 일체 만법에 걸림이 없이

22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재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익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이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무조건 죽지 않는다면 죽은세상 어떻게 맛보겠습니까

21면에서 계속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기가 알면은 얼마나 알아?' 하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저 스님은 비구니인데,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차이이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풀 한 포기 불교가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으리만큼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의 그 모든 생명들이, 바람과 물과 흙과 불과 산천초목의 나무 한 잎사귀도 불교 아닌 게 없었어 어찌 사람이 돼서 비구니데 모자라고 비구니데 잘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하다못해 돌 하나 굴러가는 걸 봐도 또는 발부리를 채여서 말이 짜개져도 이것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바로 증득(證得)할 것입니다.

도도 생명이 있어서 돌아가고 지금 이 법상도 생명이 있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상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 놨을까요? 그러나 하나하나가 생명이 있어서 하나하나가 이심전심으로 돌아가고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에 따라 여김없이 고탈라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 우습지도 않고 딱딱하지만 하겠죠. 그러나 딱딱한 것은 바로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재미 있게 웃기거나 하고 과거 얘기나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하실는지, 여러분은 웃고 즐기고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속의 여러분은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눈 뜨고 눈 감고, 일어나고 앉고 서고 생활하는 일체 만법을 바로 여러분이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내 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있지. 그 주인공이 무엇이고?' 하고 '그 하는 놈이 무엇이고?' 하기 이전에 그놈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이 밝은 세상에 '그놈이 뭐고?' '모두를 이렇게 들고 내고 있는 놈이 무엇일지?' 하기 이전에 바로 그놈이 하는 것이구나.' 하고 뛰어넘어야 되겠죠. 삼학년까지 공부를 잘하다가 너무 잘하니까 사학년쯤 뛰어넘어서 공부를 해도 능히 하려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생전에 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감을 알고, 들은 사이 없이 듣는 걸 알고, 말하는 사이 없이 말하는 걸 알고, 책을 보지도 않는 걸 알고, 책이 나를 보지 않는 거를 알고, 모든 거져 구름이 스스로 오고 가는 걸 알고, 인간이 스스로서 생각하고 말하는 걸 알고, 이 모든 망상이 전부 망상이 아니라 네놈이 한다 하는 것을 모두 증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다음에 모습을 바꿔가지고 나올 때는 여지없이 종이 돼서, 종이러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중은 계(戒)·정(定)·혜(慧) 이라는 데 계도 정에 들고, 혜도 정에 들어서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종이 돼서 이 소임을 맡든 저 소임을 맡든 수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장부로서 이 세상을 주름잡을 때 비로소 우리 국가의 역사는 거대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종이러는 것은 머리만 깎고 옷만 입었다고 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라나 살아가면서 독이 들고 살아가면서 선인의 일을 하고 그러죠. 팔자 운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서 팔자를 만들고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면서도 그랬습니다. "애야!"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스님더러 그랬습니다. "저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보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 안 보이긴 하나 돌아가는 건 알지?"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요. 그 돌아가는 데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식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돌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닿기만 하면, 그 프로펠러에 닿기만 하면, 그게 불바퀴라고 한다면, 닿기만 하면 그냥 그냥 갈아져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참 여러분이 출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분에 한해서는 또 내가 이만 하려면 깨달았지.'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깨달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망상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깨달았다고, 나를 발견했다면 겨우 땅 속에서 씨가 나와서 겨우 싹이 한들한들 하면서 나오는 격인

신도1(여): 그냥요.

큰스님: 나와서 말해요.

신도1(여): 스님들도 계시고 많은 보살님도 계시는데 나이 어린 제가 나와서 떨리기가 한이 없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니다.

큰스님: 그냥?

신도1(여): 예, 그냥.

큰스님: 어, 그래.

신도1(여): 맞았습니까?

큰스님: 맞긴 뭘 맞았? 하하하.

신도1(여): 맞는 것도 놓는 것도 그냥입니다. 그냥입니다.

큰스님: 그냥... 그래, 그냥 그냥이야.

신도1(여): 예.

큰스님: 그냥 해도 안 되고 그냥 그냥이야. 그 대로 해봐!

신도1(여): 감사합니다. 스님. 하해와 같습니다.

큰스님: 그대로 잘 해나가.

신도1(여): 하해와 같습니다.

큰스님: 또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데 어떻게 해야 잘해나가는 겁니까? 다 사람은 차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테니 칸요.

신도2(여): 저는 스님 앞에 말씀드리기가 너무 외람되는가 같습니다. 그런데 고만 봐도 못 본 체 들어도 못 들은 체 그저...

큰스님: 하하하. (고개를 좌우로 흔들심)

신도2(여): 그저...

큰스님: 하하하. 하여튼 이제 그만치 해도 알겠으니깐 가보세요. 또 누구 없습니까?

질문자1(남):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그렇게 하십시오. 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자1(남): 예, 바로 그겁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전에 보살님이 그냥 한다고 그랬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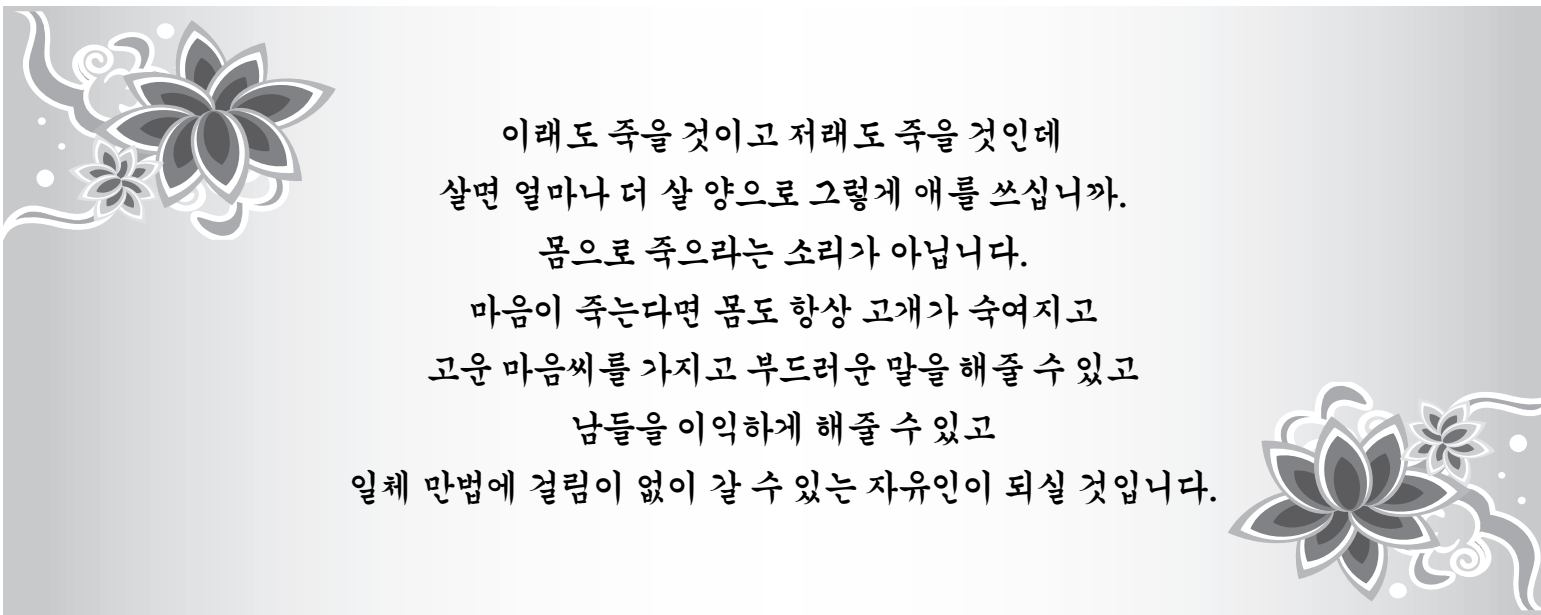
큰스님: 그거는 택에서 모르는 일입니다.

질문자1(남): 예,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물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하고 싶은 공부를, 어떻게 마음의 공부를 해야 잘하는 건지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1년 6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산천초목도 쳐다보고 이 가슴속에 흘러는 물물이 저 한 방울의 피와 같이 바다를 모두 매꿀 수 있는 한 방울이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과 또는 일체제물의 마음이, 일체 조사의 마음이,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의 마음이 다 한마음으로서 접근이 된다면 이끌어 가지 못할 게 없죠.

바로 여러분 마음 하나만이라도 접근이 되어 만이 그 모두가 접근이 되는 것이고 아주 여여하게 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알아주실 수도 있고 일체제물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고, 역대조사들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천백억화신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고, 이 산천초목도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 이 모든 마음들을, 바람의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마음도 알아주실 수가 있고요.

본래 나쁜 것은 없습니다. 본래 물도 나쁜 것도 없이 사람의 마음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

간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모두 그런데 그 돌아가는 불바퀴, 여러분의 불바퀴에 어떠한 요건의 문제도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맡겨놓으면 그냥 녹아 버립니다. 그냥 장난삼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과학자들은 아주 여자도 불문에 붙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산다 합니다. 그 연구하느라고.

그렇듯이, 보세요! 모든 것은 보이지는 않으나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거기가 진실하게 너만 이걸을 녹일 수가 있다.' 하고 진실히 믿는다면, 믿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반면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 게 없죠. 또 남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은 정의로서 아주 진실하게 말을 하되 남이 언짢다면은 거짓으로 해서라도 이 사람이 이익한다면 거짓을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융통성 있는 지혜라고 보는 것이죠. 모든 게, 사람 사는 것이 가슴이 넓어야 하고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못생겼든 잘생겼든

니다. 그것이 다 길러져서 이 세상에 모두 이심전심으로 돌아 아니게 조화를 이루고 돌아갈 때 그때에 바로 돌아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때도 깨달았다고 말은 못 합니다. 열매가 맺어서 온 누리를 두루 하면서 씨가 있어서 무르익었을 때, 그 씨를 심어서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먹일 수가 있는 그런 실과가 되어야 하고, 남들이 그 익은 실과를 갖다 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영원히 그 실과 하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점, 바로 이리해서 구경경지(究竟境地)에 이르러서 과거삼(過去三)·현재삼(現在三)·미래삼(未來三)이 통달해서 인간이 제대로 되어만이 자유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여기 다니신 지 여러 해가 되는 분들도 많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한마디 질문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여지껏 공부한 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만이 잘해나가는 건지 여러분, 대답해보십시오.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해약령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 약령사 법당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한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의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훘에 찌들어 빠져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증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령사 주지 해파 합장 전화주사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고급 밤나무 재질

울림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작

- 규격 : 大 / 中 / 小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승단을 지켜버지 못한 죄를 참회합니다.

마이크 목걸이

A 타입 분리형 B 타입 고정형

실용신안의 장특출출원

A 타입 ₩65,000
B 타입 ₩55,000

A+B (1set) ₩100,000
택배비 무료

주문전화
 구미 미르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 마이크 굵기 직경 38mm 이상은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입금계좌(예금주: 미르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